

아이코노그래피 : 서양미술 속에 숨겨진 알레고리, 신화와 성서 읽기  
윤 익 영

## 제 8 장 위선과 진리, 시간과 신중의 알레고리

### 8.3. 진리(Truth, Veritas)와 정숙(Chastity) ; '자연적 나신은 진리이며 순결한 것'

퇴폐적 사랑과 육체의 아름다움, 헛된 쾌락과 질투, 기만으로 감춰진 모든 것들이 크로노스(폭로자)와 진실의 여신에 의해 드러나는데, 파노프스키의 '진리는 시간의 딸'이라는 고전 문헌에 근거한 것이다.

◆ **누드로 묘사된 '진리'** - '진리'가 여인 누드로 표현되는 것은 그리스도교의 「히브리서」(4:13)의 "하나님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는 말씀에서 비롯되어 속임수, 거짓, 은폐와 반대되는 '명백함', '사물의 참된 본질'같은 긍정적인 면을 가지며, 성경 「시편」(85:10)에서 노래한 "인애(자비)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 맞추었으며"란 대목을 묘사한 그림(1350년경)에서 '자비'는 옷을 입고 '진리'는 옷을 벗고 있다.

◆ **중세 미술에서 허용된 세 종류의 누드** - 첫째, '자연적 상태'의 순진무구함, 둘째, '덧없는 세상'에 대한 금욕적 가난(예, 사도나 수도사 등), 셋째, '신앙적 정조'의 순결을 나타내는 경우

◆ **'자연적 나신' 변화** - '자연적 나신'은 '벌거벗은 정숙'을 발전했고, '벌거벗은 진리'와도 연합하게 되며, 옷을 입은 것과 대조될 경우는 옷을 입은 쪽이 부정적인 것이다. (도판<불굴의 용기와 정숙>)에서는 헤라클레스와 '정숙'의 의인화 한 것

◆ **(도판<아펠레스의 중상모략>)** - '벌거벗은 진리'와 같은 유형이며, 『회화론』을 참고 했던 보티첼리는 '정숙한 베누스' 유형의 누드로 상상했던 것

이로인해 15세기 이탈리아에서는 '벌거벗은 진리'의 개념이 세속적 차원으로 바뀐(조토 시절만 해도 '정숙'은 옷을 입고 있다)(도판)

이 모두 프락시텔레스의 '정숙한 아프로디테' 유형인 '크니도스 유형'을 따른 것(도판)

◆ 『이코놀로지아』 - '진리'는 옷을 입지 않으며, 빛과 동행하는 진리의 상징인 '태양'과 학문 탐구의 진리 도달을 의미하는 '책'을 들고 있으며, 세상의 지배를 뜻하는 지구의를 밟고, 어린애가 거울고 천칭을 들고 있다고 묘사 한다.

◆ '진리가 옷을 걸치지 않는 의미 - 내재적 아름다움, 선천적이고 참된 모습과 본질을 의미 하기 위함이다. 베르니니의 (도판<진리>)와 루벤스의 (도판<진리의 승리>), LEMOYNE의 (도판<거짓과 질투로부터 진실을 구하는 시간>), 클림트의 (도판<진실>)에서 볼 수 있다.

#### 8.4. 시간의 신 크로노스(Cronos)

◆ 크로노스(로/사투르누스)는 타이탄 족의 하나로 '시간의 신'이다. 우라노스는 흉측한 키클롭스를 비롯해 크로노스를 가이아의 뱃속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어머니와 음모하여 아버지의 성기를 거세한 후, 아버지의 통치권을 빼앗았다. 아버지처럼 폭군으로 변해 형제들을 타르타로스로 가둬 버리고, 어머니 가이아로부터 "너도 네 자식들 가운데 하나가 너를 거세시킬 것이다."는 말을 듣고 자기가 낳는 자식들을 모두 삼켜버렸다. 제우스만은 살려내고 싶은 아내 레아는 가이아에게 도움을 청하여 크레타 섬의 한 동굴에서 몰래 키워진 제우스는 아버지 크로노스를 비롯한 타이탄 족들을 몰아내고그가 삼켜버렸던 자식들을 모두 토해내게 한 후 타르타로스에 유폐시켜버렸다.

◆ 로마 신화에서의 사투르누스(크로노스) - 그가 우주를 지배하며 지상 낙원의 '황금시절'을 만들어 땅은 스스로 많은 소산물을 내고 젖과 꿀이 흘러넘쳤으며 모두들 여유롭고 평화롭게 지내도록 했다. 이 모든 것을 유피테르(제우스)에게 물려주고 엘리시움(축복 받을 영혼들이 머무는 곳)을 통치하기 위해 떠난다. 로마에서는 12월 21일에 '사투르누스 축제'가 있고, 이는 훗날 그리스도교의 크리스마스 축제와 연관성을 갖게 된다.

#### 8.5. 늙은이 크로노스

'시간의 신' 크로노스(Cronos)는 시간을 뜻하는 'Chronos'와 늙은이 신을 뜻하는 'Kronos'의 합성어 'Khrônos'(희랍어)이다. 'Chronos'와 'Kronos' 두 개념을 동일한 것으로 글을 처음 남긴 사람은 고대의 플루타르쿠스였다. 헤라의 '공기', 헤파이스토스가 '불을 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늙은이 신은 시간을 뜻한다. 그러나 본래의 시간(Chronos)은 늙은이가 아니라 젊은 청년으로 묘사되었고 두 가지 의미를 지녔는데, '어떤 전환점을 이루는 결정적인 순간'

을 의미하는 카이로스(회랍)와 '영원한 창조의 신적 원리'를 의미하는 아이온(이란)이 그것이다.

#### 8.6. 크로노스에서 변형된 '행운의 여신'

시간(Chronos)은 나중에 라틴어로 템푸스(*Tempus*)라 했고, 카이로스(Kairos)는 오카시오(*occasio*, 기회, 행운)으로 변했으며, '때'를 놓쳤다는 말은 '기회'를 놓쳤다는 말도 된다.

##### ◆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차이

'크로노스'가 물리적인 시간의 성질 - 열차 시간표가 정한 시간

'카이로스'는 어떤 의미 있는 시간이나 심리적인 시간의 성질 - '너도 철들 때가 있다'에서 정해져 있지 않은 시간(도판)

##### ◆ '기회'와 '행운'의 융합

고대 로마부터 '기회(Opportunity)'란 이름으로 묘사되었던 카이로스는 11세기 이후 '행운(Fortune)'과 융합되면서 변모하게 됨

'기회(occasio)'와 '행운(fortuna)'은 모두 여성 명사였기에, 남성이었던 기회(즉 카이로스)는 여성으로 변화

고대 로마의 포르투나(Fortuna)는 도시의 수호자, 뜻밖의 은혜(호의)를 베푸는 행운의 여신이었고, 이집트의 이시스(Isis) 여신과 그리스의 Tyché여신에 해당

##### ◆ 실비아티의 (도판<행운과 미덕 사이에 있는 팔라스 아테네>)

중세 말 혹은 르네상스 초기부터 '행운의 여신'은 둥근 공과 함께 등장하는데, 불안정한 행운 즉 행운이 누구에게 갈지 자신도 모른다는 표현

안대를 한 '행운의 여신'은 공평성 상징하며, '정의 여신'처럼 긍정적 의미의 안대이지만, 그들의 본질적인 상징물은 아님

##### ◆ (도판<바다와 행운의 여신 알레고리>)

행운의 미소가 돌아간 곳은 양지바르고 온화하며 기후와 보석, 왕관, 주교관 등 보화와 권능이 던져지지만 그 반대편은 폭풍과 화염에 싸였으며 어둠과 기근으로 황폐함

##### ◆ '운명의 여신'

'행운의 여신'과 대조적인 성격으로 '운명의 세 여신(클로토, 라케시스, 아트로포스)'이

있는데, 운수와 명수를 주관하면서 주로 파멸이나 죽음 같은 불행한 결말을 맺음

고대 그리스는 그 세 여신을 '모이라이(Moirai)'라 불렀고, 아버지는 제우스이고 어머니는 '정의와 질서의 여신' 테미스(Themis) 혹은 '밤의 여신' 닉스(Nix)라 함(헤시오도스)

클로토가 운명의 실타래를 뽑아내면 라케시스가 운명의 실을 짜고 아트로포스는 그 실을 잘라내어 방추, 실타래, 가위가 상징물 임(도판)

로마에선 '파르카에(Parcae, 영, Fates)'라 불렀고, 생사를 주관하는 지하의 여신 임

리파의 『이코놀로지아』는 "오직 시간만이 운명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다.

### 8.7. 낮을 든 시간의 신 크로노스(사투르누스)

이 늙은 신(시간의 신)은 농업을 수호하는 농신이기에, 작은 낮을 든 것이며, 나이 많기 때문에 행성들 가운데 가장 높고 차가운, 그리고 가장 느린 토성이 된다. 4세기와 5세기에는 그에게 '시간의 속성'을 나타내기 위해 자신의 꼬리를 물고 있는 뱀이나 용을 첨가시켰다.

크로노스의 작은 낮(휘어진 모양)은 본래 농기구나 거세의 도구를 의미하며, '스스로에게 되돌아오는 시간'으로 해석된다. 시모니데스는 시간이 '날카로운 이빨을 지녔다'했고, 오비디우스는 '사물을 남김없이 먹어치운다'고 했다. 자기 자식들을 삼킨 '크로노스-사투르누스'이 야기는 '시간'이 창조한 모든 것을 시간 스스로 집어 삼킨다고도 설명하게 됐다.(도판)

### 8.8. 우울하고 포악해진 시간

혹성들 가운데 가장 차갑고 느린 크로노스-사투르누스의 별자리를 갖고 태어난 사람은 우울한 성격을 지니게 된다는 믿음은 '시간'의 이미지를 다소 침울한 인물로 묘사된다. 그의 기운을 받아 태어난 사람들은 절름발이, 구두쇠, 거지, 가난한 농부, 무덤 파는 사람들이어서 중세를 지나는 동안 우울하고 혐오스러운 이미지로 변형되었다. 작은 낮은 파괴를 상징하는 큰 낮으로 바뀌고, 빈곤한 늙은이, 목발을 한 절름발이, 혹은 죽음과 관련되어 묘사됐다. 거세 장면이나 아이를 삼키는 잔악한 모습으로도 묘사된다. '시간'은 또 세 개의 머리(과거, 현재, 미래)와 네 개의 날개(사계절)를 지니고 나타나기도 한다.(도판) 또한 크로노스는 '파괴자' 혹은 '폭로 자'로 부각되며(도판), 빠른 세월을 의미하는 화살, 농부였음을 알리는 곡괭이와 곡물(도판), 그리고 딸 진리대신에 모든 역사를 기록하는 뮤즈 클레이오가 커플로 그려진다(도판).

### 8.9. 그 밖의 크로노스(Tempus, Time) 이미지

*Tempus fugit*(Time flies)' '세월은 화살과 같다'

◆ 『이코놀로지아』에서 설명한 '세월'의 형상 - 세월은 수염을 기르고 날개를 단 노인이다. 시간은 날아가기 때문이다. 그가 걸친 의상은 시간에 따라 변하는 지상만물을 관장하는 별들로 장식됐고, 사계절의 소산물인 장미, 곡물, 이삭, 과일, 마른가지로 엮은 화관을 머리에 두르고, 한 손엔 현재와 허상을 비추는 거울을, 다른 손엔 시간의 주기나 영원을 상징하는 뱀을 들고 있다. 천체의 움직임으로 시간을 측정하기 때문에 황도 12궁을 딛고 서있으며, 두 명의 어린아이가 각각 해와 달을 머리에 장식하여 낮과 밤을 나타내고 그들 곁엔 '시간은 만물에 평등 함'을 나타내는 천칭이 놓여있다. 배경이 폐허가 된 것은 시간은 모든 것을 갉아먹는 무쇠 이빨을 가진 파괴자이기 때문이다.

#### 8.10. 신중(慎重)의 알레고리

'신중(prudence)'의 알레고리는 종종 '시간'과 관련되어 묘사되는데, 중세 말엽 페투루스 베르코리우스는 『모럴리스트Repertorium morale』에서 신중을 "과거를 돌이켜 현재를 바로 잡고 미래를 살피는 것"이라 말한다. 그러나 이 말은 6세기경의 어느 스페인 추기경에 의해 혹은 위(僞) 플라톤 학파들의 격언인 "과거는 업적을, 현재는 실제적 문제를, 미래는 결과를 낳는다."는 말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

◆ 티치아노의 (도판<시간을 다스리는 신중의 알레고리>) -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신중하게 처신 한다/ 미래의 행동이 추하지 않기 위해"라는 문구를 볼 수 있다.

□ 운문형식의 이 글은 서양의 글쓰기 진행방식에 따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과거→현재→미래' 순으로 시제가 나열되고, "과거를 통해서" 밑에는 노년을 그렸으며, "현재를 신중하게 처신 한다" 밑에는 장년을, "미래의 행동이 추하지 않기 위해" 밑에는 청년을 그렸다. 그림의 맨 위에서, 마치 시계 바늘처럼 좌에서 우로, 위에서 아래로 돌며 '과거(왼쪽, 노년)→현재(가운데, 중년)→미래(오른쪽, 청년)'의 시간적(공간적, 연령적) 이동을 유도해 낸다.(도판) 이같이 '과거-현재-미래'가 시간 축을 만들고 있다면, '왼편-가운데-오른편'은 공간 축을, '노년-중년-청년'은 인생 축을 세웠다. 이어서 교활한 늑대는 노인의 지혜를, 힘이 센 사자는 중년의 실권을, 충성이 강한 개는 청년의 성실을 의미한다. 또한 왼쪽의 '과거-노년-늑대'는 회상을, 가운데의 '현재-장년-사자'는 맹렬한 활동을, 오른쪽의 '미래-청년-개'는 장

래의 희망을 상징하며, 티치아노가 유언의 형식으로 과거(자신)와 현재(아들)와 미래(손자)의 가문을 생각하여 신중하게 처신할 것을 교훈하는 것이다.

### 8.11. 신중의 지혜를 상징하는 과거, 현재, 미래

중세 말경부터 세 개의 불꽃이나 세 개의 거울, 혹은 세 권의 책, 연령층이 다른 세 쌍의 얼굴은 각각 '과거' '현재' '미래'를 상징하며 '신중'의 알레고리이고, 머리 셋(늑대, 사자, 개)은 전통적으로 '지혜'를 상징하고, '뱀'의 속성과 관련 있다.(도판)

뱀이 머리 셋 달린 괴물을 칭칭 감은 것 - '과거-현재-미래'를 한 시제로 엮은 '시간의 지혜'를 상징

뱀이 원을 그리며 자신의 꼬리를 삼키는 것 - 영원성, 일정한 주기(週期)의 반복  
늑대, 사자, 개의 머리를 지닌 뱀, 혹은 소녀, 숙녀, 노파의 얼굴로 뱀을 든 여인은 시간의 지혜를 다스리는 '신중'의 알레고리(도판)

#### ◆ 늑대, 사자, 개의 머리가 달린 괴물의 기원

하데스의 삼 두 견(三頭犬)인 '세르베르(케루베루스)'

이집트-헬레니즘 시대의 '제우스-세라피스' 혹은 '아폴론-세라피스(멤피스에서 지하의 신)'이였으나, 이집트와 그리스의 태양신으로 풍요와 치료의 신)'의 삼두 괴물과 연합(도판)

### 8.12. 신중의 지혜를 나타내는 그 밖의 상징들

#### ◆ 『이코노모지아』에서 설명한 '신중' (도판)

신중한 사람은 얼굴이 두 개(남,녀)인데, 앞(과거)을 보면서 뒤(미래)도 돌아보기 때문임

금박의 투구 - 머리의 특별한 장식이나 모자는 지능의 알레고리와 관련(신중한 사람의 지혜 상징)

뿔나무 잎 화관 - 신중한 사람은 서두르지 않고 계획에 따라 천천히 결정 한다는 의미

화살의 뱀장어 - 화살은 속도와 정확성을 상징하지만 화살에 감긴 뱀장어는 그 무게로 성급한 결정을 제동하는 신중함

숫사슴 - 튼튼한 다리로 빨리 달리 수 있지만 무거운 뿔 때문에 속도를 늦춰 뿔이 덤

불       에 걸리지 않도록 매우 조심하는 신중한 동물이며, 되새김질도 하고 명상을 하므로  
어떤       일에 대해 거듭 생각하며 결정하는 신중함

해골달린 목걸이 - 인생의 종말을 관조하며 그에 대비하는 사려 깊은 행동

#### ♣ 알레고리와 상징

공통점 - 어떤 원형(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 개념)을 그 모상(模像)에서 보려는 것

예) '정의'라는 추상적 개념을 '저울'로 상징하는 것

상징 - 저울은 그 속성인 '균등' 때문에 정의를 상징할 수 있는 것 즉, 반드시 '실물  
기표'가 필요

알레고리 - 어떤 개념이나 의표, 즉 시대적 지성과 사상이 요구하는 사회적 모델(정신,  
윤리)의 이데올로기로 나타남